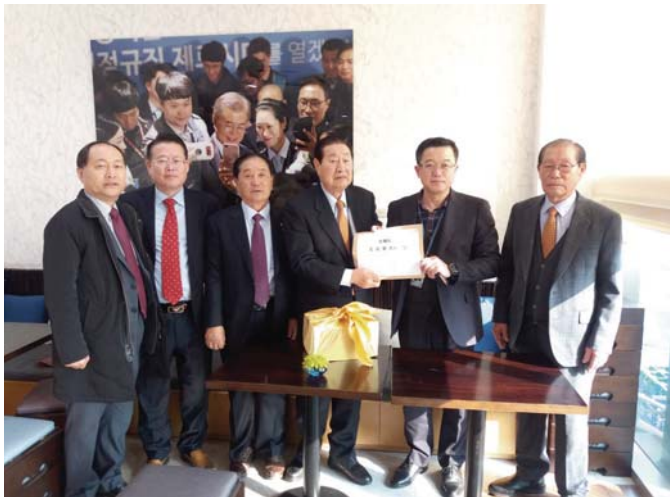


행주대첩제 기념행사 국가행사로 격상하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건의서 제출



권해욱 회장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실에 건의서 전달



권해욱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서 직접 전달

권해욱 안동권씨 대총회 회장(제13~14대 헌정회 전 사무총장)이 국회 헌정지 4월호에 기고한 글이다

권해욱 전 국회의원(13,14대 국회의원, 안동권씨 대총회 회장)은 지난 1월 11일 권운을, 권경석 전 국회의원 등 대총회 임원들과 함께 총장공 권을 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와 안동권씨 100만 종친의 대표격인 각 지역 종친회 임원들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일반시민 1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제출했다. 안동권씨 대총회에서는 이 역사적인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범국민적인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행주대첩은 청사에 길이 남을 국가중흥의 근본

총장공 권을 도원수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존망이 걸려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경기도 고양 행주산성에서 민·관·군·승려·부녀자 등 2,300여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3만의 왜군을 격퇴시켰다.(선조 26년, 1533년 2월 12일, 음력) “행주에서의 승리는 난리가 일어난 후의 일대 승첩으로써 경성을 수복한 것은 오직 이 사람의 공로라고 모두를 말했다”(선조실록 선조32년 7월 기미)고 실록은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권을 도원수는 임진왜란 최초 육전의 승리를 장식했던 이치대첩(義持大捷)과 세마(洗馬)의 기발한 기지로 적을 물리친 독산성 전투의 승리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시 사관들은 “그 이치의 승리와 행주의 대첩은 비록 옛날 명장이라 하더라도 여찌 그보다 더하겠는가. 국가가 중흥의 업을 이룬 것은 실로 이에 힘입은 것이니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선조수정실록 선조32년 7월)고 평가했다. 또한 권을 도원수와 동시대의 인물로

서 우국충정과 도량을 지닌 명신으로 평가받는 한음 이덕형(1561~1613)은 “권을이 행주에서 크게 이긴 것이나,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힘껏 싸운 것은 당시에 그 공이 으뜸으로서 실로 중흥의 근본이 되었으니 이름이 청사(淸史)에 드리워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이덕형, 대동야승)고 말했다. 이는 권을 도원수의 행주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을 임진왜란의 으뜸 되는 공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는 권운장군

권을 장군은 행주대첩 등의 혁혁한 전공(戰功)을 인정받아 전 군을 통솔하는 군 최고지휘관인 도원수에 올라 임진왜란을 극복할 때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 군을 지휘했다. 전쟁이 끝난 후(1604, 선조 37년) 권을 도원수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국난극복의 공훈으로 선무 1등 공신에 봉해졌다. 이처럼 “바다는 이순신, 육지는 권을”임에도 불구하고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는 기념행사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반면 총장공 권을 도원수를 기리는 행주대첩제는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와 지역 유림들이 봉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3대 국회 1990년 11월 문화부 국정감사 질의 답변

권해욱 전 국회의원(13,14대 국회의원)은 1990년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역사적 과제를 재정립하기 위해 당시 이어령 장관에게 “같은 시대 같은 선무일등공신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한 두 분의 업적은 대단히 크다고 보며 같은 수준의 제향(祭享)을 올려야 마땅한 줄 아는데 이에 격

차를 두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라고 질문하자 이어령 장관은 “일대 지방행사는 관광 및 교육확충장점으로 만든다는 뜻과 정신면에서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견해를 같이 하며 현재 민족정기로서의 한일관계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서 제고해 나갈 것이며 내년(1991년)에는 행주대첩행사를 문화부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행사를 치를 뿐만 아니라 종래의 그러한 행사를 좀 더 다르게 성대하게 치를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듬해 이어령 장관은 행주대첩제를 직접 주관했다.

이후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사의 주체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동권씨 대총회에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와 서명부를 지난 1월 제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 14일 제426회 행주대첩제 역시 예년과 똑같이 고양시가 주관하였다. 오직 조국을 위해 목숨마저 초개와 같이 바쳤던 민·관·군·승려와 흔린 백성들의 호국의 업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차원의 국난극복 정신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행주대첩제를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엽 고양문화원장 역시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치루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인 회원 19년 동안 행주대첩제 참석

특히 우에다 도시코씨 등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인 회원들은 2001년부터 행주대첩제에 참석하면서 지난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더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9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주대첩제에 참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일본인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인문정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천을 통해 넘어설 필요가 있다.

행주대첩이야말로 전 국민적인 국일의 정신문화 창출에 가장 적합

우리 조상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일제와 싸우며 3.1운동 등을 통한 독립 투쟁을 전개했다. 권을 도원수의 행주대첩 역시 동일한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일(克日)했는가? 식민사관을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을 영웅화시킨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가올 미래는 3.1운동이 깨우쳐주듯 국민 전체의 정신문화를 높이는 일이어야 한다. 민·관·군·승려·부녀자 등이 참전했던 행주대첩이야말로 전 국민적인 국일의 정신문화를 창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행주대첩에 대한 정당한 역사 평가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시대 정신의 발로라고 사료된다.

때문에 행주대첩에 대한 정당한 역사 평가는 미래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열여러분께서도 민·관·군·승려·부녀자 등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왜적을 물리치고 이 강토와 민족의 생존을 지킨 행주대첩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나아가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자는 그 숭고한 뜻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제례가 시작되기 전에 권해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총회에서 설치한 현수막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인 회원 행주대첩제에 19년 연속 참석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인 회원들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행주대첩제 기념행사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행주대첩제 기념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 지난 3월 13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 우에다 도시코씨와 오오카와 마리코씨를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국장: 무슨 모임인가.

우에다 도시코: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으로 고양시 덕양구지부에 회원이 30~40명 된다.

편집국장: 한국에 살고 있다.

우에다 도시코: 일본 사람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이며 고양시민이다. 자녀들은 이중국적자들이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 적당한 시기에 한국에 귀화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행주대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지 않아서 몰랐다. 한국에 와서 특히 고양시에서 살다보니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권운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가 행주대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집국장: 행주대첩에서 무엇을 느낀다.

우에다 도시코: 당시 권운장군 부대 인원은 2300여명 밖에 안 되는 적은 수로 3만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이겼다고 들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 일반인들도 같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 나라 지키는 마음과 민족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편집국장: 권운장군에 대해서 아는가.

우에다 도시코: 잘 모른다.

편집국장: 권운장군은 안동권씨이다. 안동권씨는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사상을 받아 율해로 1090년이 된 고려와 조선의 명문가이다. 권운의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냈다. 그래서 권운은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게 자랐다. 40세가 넘을 때까지 벼슬도 하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다니곤 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불과 몇 년 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권운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이다. 처음부터 칼을 휘두르는 무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와 국가 위기에 빠지자 칼을 찬 장군이 되어 전쟁을 총지휘하는 도원수가 된 것이다. 또 행주대첩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다. 맨 처음 충청도 금산 이치고개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것이 이치대첩이다. 그 다음 오산에 있는 독산성 전투에서 또 일본군을 격파했다. 그 다음에 행주산성으로 올라와서 3만여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민·관·군·승려·부녀자 등 230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첩을 거두게 된 것이다.

우에다 도시코: 행주대첩 말고 또 다른 전투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언제 기회되면 우리 회원들에게도 교육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편집국장: 기회되면 언제든지 교육시켜 드리겠다. 그런데 행주대첩제에 19년이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



오오카와 마리코(왼쪽)씨와 우에다 도시코씨.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설치한 현수막

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오오카와 마리코: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다. 또 미래 한일관계 발전에 디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매년 오고 있다.

편집국장: 한일관계에도 관심이 많은가.

오오카와 마리코: 관심이 많다. 일본 지도자들도 역사를 직시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집국장: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이고 외할아버지 또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통치하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오다가 1945년 친환의 함복으로 인해 일본으로 물러나면서 다시 오겠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아베가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겠는가.

오오카와 마리코: 아베 총리도 역사를 바로 알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젊은 세대들도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제대로 정치하는 바람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주변 국가끼리 협력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집국장: 오히려 남북관계 등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오오카와 마리코: 행주대첩처럼 한 일간의 위기를 남북관계에 이용하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

편집국장: 역사공부를 많이 하나 보나.

오오카와 마리코: 모임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편집국장: 19년 동안이나 행주대첩제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오오카와 마리코: 앞으로 한국 분들과 일본인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역사적 사실을 알고 이 날을 통해 사죄와 화해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몇 번 사죄를 드려도 부족합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안동권씨 종친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주대첩제가 국가 행사로 빨리 승격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편집국장 권해욱



제426주년 행주대첩제 기념행사 헌관 및 제정사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



영연에서 이른 새벽부터 대행버스 1대로 달려온 영연종친회 회원들, 권경환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권영성 상임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제60사단 김덕영 사단장 등 권운부대 지휘관들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권운장군과 행주대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문화해설사들



행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도포를 입고 정렬해 있다. 주로 4~6학년들이 매년 참석하고 있다.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라는 어깨띠를 나눠주고 있는 권기성(아래쪽)과 권해욱 편집국장 그리고 권순용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왼쪽).



권해욱 회장, 대총회에서 마련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



기념행사를 마치고 대첩문 앞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식당에서 대총회에서 점심식사로 마련한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안동권씨 종친들 모습.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들